

## 지역 종합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 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

주 인 택(광주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지역종합박물관의 현황
- III. 지역종합박물관의 과제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옛것들이지만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미래의 기관임은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다.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난 행적들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축적된 삶의 지혜를 이어받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박물관에는 국가나 민족이 지나온 행적이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소장되고 있다. 박물관 자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러한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현대의 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이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선도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대는 학문의 분화에 따라 여러 분야의 박물관이 탄생하고 있다. 연구된 업적은 박물관의 전시로 연결되고, 박물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다. 즉 박물관은 여러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전달 확산하는 매체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문분야를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특수박물관들이 생겨나면서 전문지식의 대중화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순기능은 대중들의 지식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빈부와 계층을 떠나 삶의 균질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박물관을 21세기의 핵심문화시설이라고 하고, 그 숫자가 많아야 한다고 하며, 박물관의 수에 따라 문화수준을 가늠하기도 한다.

지구촌시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밀레니엄시대 등 새로운 용어들이 대표하고 있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또는 ‘문화전쟁의 시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전쟁의 시대’로 얘기되고 있다. 문화의 진흥과 발전 보급문제는 모든 나라와 민족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자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중심문화의 패턴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문화

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만큼 지역에 있는 박물관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 전문가들은 21세기 박물관 경영의 핵심은 새로운 박물관의 설립보다는 현존하는 박물관 기능의 개선과 박물관간의 상호 협력 증진에 두고 있다.<sup>1)</sup>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은 이러한 선진적인 박물관활동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우선 그 역사가 일천하여 수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박물관학이 보급되지 못함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또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어느 학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넘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1만 달러를 넘어서야 자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난다고 하였다. 이를 대입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제적인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박물관도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또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 각종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향수권 충족과 이미지 부각을 노리고 있다.

현대의 박물관이 순기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우선 박물관의 수적인 증가와 아울러 현대적인 운영방식 도입, 그리고 박물관 이용객이 많아야 한다.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영의 방식을 검토해보는 것 또한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박물관, 그 중에서도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종합박물관을 중심으로 현상적인 입장에서 그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지역종합박물관의 현황

### 1. 지역종합박물관의 범위

논의를 하기 전에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야 하겠다. 오늘의 주제는 ‘지역’과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공간적으로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성격적으로는 종합박물관으로 각 지역에 있는 종합박물관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우선 지역이라 하면 중앙에 종속된 지방이라는 용어와 달리 그 자체가 독립된 개념으로 일정한 땅의 구역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방은 공간을 수직적으로 나눈 개념이라면 지역은 수평적인 개념이다.<sup>2)</sup>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곳은 지방에 대한 중앙에 해당되지만, 독립된 공간영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에 해당된다.

종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것이

1 캐리 에드슨·데이비드 던 지음. 이보아 옮김. 『21세기 박물관 경영』, 시공사. 2001

2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1』, 역사문화학회 편, 학연문화사, 1998, pp. 20~24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박물관을 전시내용이나 소장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주제박물관<sup>3)</sup>과 종합박물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학자 加藤有次는 종합박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다루는 자료는 여러 과학분야 중에서도 형이하학적인 분야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을 매체로 한 활동도 자칫하면 물질문화의 변천과 현상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중들이 박물관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미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대자연 속에 사는 인간사회의 지혜의 구조를 분석하는 곳이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등의 개별적인 학문이 아니라, 이러한 학문들을 종합하여 인간생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추구하는 궁리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종합박물관이다.<sup>4)</sup>

즉 종합박물관은 인간사회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여러 학문을 공동연구 해야하는 곤란함이 장애요인이라고 적시하면서 이러한 박물관은 매우 이상적인 박물관에 속하며, 실제로 있다면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할 것이며, 실제로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의 종합박물관 정의는 일본의 박물관 설치기준에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양 분야를 통틀어 종합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박물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의 독립분야에서 각각 2분야 이상을 아우르는 경우에도 종합박물관으로 정의하기도 하다.<sup>5)</sup> 인문과학을 예로 들면 고고, 역사, 향토, 문화, 민속, 미술 등의 여러 분야 중에서 2분야 이상을 다루는 곳이 종합박물관이라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빌어 종합박물관과 주제박물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우선 박물관의 법체계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이러한 정의와 분류기준이 없다. 박물관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종합’과 ‘주제’ 박물관을 개념상 분류는 하고 있으나 개별 박물관마다의 실제적인 정확한 분류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등록된 박물관 중에서 종합박물관으로 분류된 곳은 6곳에 불과하다.<sup>6)</sup>

그러면 종합박물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가. 국립박물관은 모두 종합박물관

3 주제박물관은 전문박물관, 특수박물관, 테마박물관 등으로도 불리운다.

4 雄山閣出版, 『博物館學講座1』, 1979, p.197

5 雄山閣出版, 『博物館學講座1』. pp. 191~199

6 종합박물관으로 분류된 곳은 다음과 같다. 충주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부산박물관, 한국민속촌박물관(등록번호순)

에 속한다 할 것이다. 공사립박물관을 분류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광주민속박물관이나 안동민속박물관은 기관명칭과 전시내용 때문에 전문박물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향토사자료 등은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기획전시회나 교육 또는 연구기능에 있어서 향토의 역사와 문화도 주제로 잡아 활동하고 있고 성과물도 발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시립 군립박물관이나 향토사료관들도 그 지역의 고고, 역사, 민속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관의 명칭이나 규모의 대소에 관계치 않고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수집 전시하는 주제박물관을 제외하고 모두 종합박물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분류하는데 전시내용 뿐만 아니라 소장자료의 종류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소규모의 박물관도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박물관은 국립박물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 아직도 운영측면에서 후진적인 입장에 있는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지역종합박물관의 설립 추이

우리나라에서는 1946년 인천시립박물관이 개관되어 국립박물관이 전시품의 대여와 운영을 시작한 것이 공립박물관의 시작이다.<sup>7)</sup> 해방이 되자 이경성(李慶成)을 비롯한 인천의 뜻있는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인천에 살던 일본인들의 소장유물과 그들이 운영하던 향토관 유물의 인수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전시유물이 부족하자 국립민족학박물관 유물 75점과 국립박물관 유물 19점을 차용하여 세창양행(世昌洋行) 사택에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공식적인 개관일자는 1946년 4월 1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 세워진 날이다.<sup>8)</sup> 대구시에도 시립박물관이 있었다고 전한다.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건립연대와 운영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방 후에 달성공원에 건립되었는데 한국전쟁시기에 유물망실과 훼손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폐관하게 되었다고 한다.<sup>9)</sup>

그 후 1960년대에는 전주와 광주에 각각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전주시립박물관은 1963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경기전 내에 도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1976년 3월 전라북도의 사업소 정리방침에 따라 전주시로 이관되어 시립박물관이 되었다. 운영 당시 주로 고고학 자료의 전시 및 수집에 치중하였으며, 90년 국립전주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두 박물관의 성격이 중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흡수되어 버렸다. 광주시립박물관은 1963년 5월 29일에 독립으로 개관하였다가 1964년 광주시로 이관되었고, 1987년 현재 광주광역시립민

7 이난영, 「국공립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제3회 박물관학 학술대회 : 한국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발표요지), 1999. 11. 26. p.9

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1998, p.3

9 윤정혜(대구광역시향토역사관 학예연구사)의 증언

속박물관으로 확대 이전하였다.

이 때의 공립박물관들은 시설 인력 예산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규모의 전시실이 운영되고 있었고, 기능면에서는 지방에 있었던 유일한 박물관으로 각 도의 매장문화재 취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sup>10)</sup> 즉 지방에 국립박물관이 건립되기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립박물관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공립종합박물관으로서는 부산시립박물관이 유일하게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의 건립은 1960년대에 추진되어 1963년 용두산공원에 기공식까지 마쳤으나 때마침 불어 닥친 관광사업으로 인하여 미루어졌다.<sup>11)</sup> 15년 후인 1978년 7월 11일 현 위치에 개관한 부산시립박물관 건립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때까지 대구, 인천, 전주, 광주에 있었던 공립박물관들은 박물관 건물로 설계되지 못한 작은 규모의 건물이었고, 학예연구실을 비롯한 조직이 없었던 관계로 실질적인 박물관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부산시립박물관은 박물관 건물로 설계되었고, 직제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이 짜여졌으며, 관장도 학계의 전문가(초대관장 : 김정학)로 임명되고 학예연구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박물관으로 출발하였다. 시설과 인력, 그리고 운영 등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공립박물관이 탄생한 것으로 이후 각 시·도 박물관 건립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에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충주박물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거창박물관 등 4개의 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이 시기는 70년대의 산업화 영향으로 점차 시·도에서 박물관 건립추진 활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때이었다. 또 전통문화의 기반이 와해되고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던 시기로 민속박물관이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충주나 거창과 같은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박물관을 건립하기 시작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었던 시기이었다.

1990년대에는 안동민속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등 총 8개의 종합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주제박물관을 포함한 공립박물관으로 건립된 총 숫자가 23개관에 이르고 있으니 박물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박물관은 종합박물관(34.8%) 보다는 주제박물관(65.2%)의 비율이 높아 박물관의 건립이 전문분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박물관은 4개가 건립되어 이 시기의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건립한 박물관은 6개(26%)에 그치고 있어 박물관의 건립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금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등 3개

10 광주시립박물관은 개관이후 수행해왔던 매장문화재 취급업무를 1978년 10월 10일자로 국립광주박물관(1978. 12. 6 개관)으로 넘겨주었으며, 그 동안 보관해왔던 매장문화재 100,772점은 1979년 4월 17일자로 이관되었다.

11 부산직할시립박물관, 『연보』 1~2집, 1981

의 종합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에는 지금까지 국립박물관이 그 역할을 대신 한다고 믿었지만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도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이미 있었던 전주시립박물관의 폐쇄 후 12년 만에 다시 건립되어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공립박물관 설립추이 분석

	계	194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설립지원 (‘96~’01)
공립박물관(A)	35	1	(2)	1	6	23	4	48
종합박물관 (A중에서)	17	1	(2)	1	4	8	3	12

※ ()안은 확대개편(1), 흡수통합(1)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 계수에 포함되지 않음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건립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96년부터 2001년까지 48개 기관 589억이 지원되었고, 2001년도에만 21개 기관에 159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sup>12)</sup> 이들은 대부분이 신규박물관으로 미개관 상태이므로 앞으로 박물관은 수적인 면에서 대폭적인 증가가 확실하다. 건립 지원을 받은 박물관 중에서 종합박물관으로 추정되는 곳은 동해, 원주, 화천, 속초, 정선, 논산, 천안, 남원, 순천, 영주, 경산, 마산 등 모두 12곳(25%)이다.

건립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개관한 박물관 중 주체박물관 비율이 65%이었던 것이 추진중인 박물관에서는 75%로 상승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박물관은 9개(18.7%)로 비율에 있어서 1990년대보다 적어지고 있다. 이를 보면 2000년대 들어서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은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종합박물관 보다는 주체박물관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 소도시로 확산 현상은 박물관의 보급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3. 지역종합박물관의 현황

#### 1)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 (1) 서울역사박물관

12 박물관(미술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 액수는 전시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총액의 30%이다. 그러므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건물을 건축중이라는 얘기가 된다. 연도별 지원상황을 보면 96년 1관(30억), 97년 2관(20억), 98년 13관(80억), 99년 15관(122억), '00년 22관(178억), '01년 21관(159억)이다. (문화관광부 공식홈페이지)

2002년 5월 옛 경희궁 터에 연면적 20,165㎡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의 시립 종합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유서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간예산은 125억 5천만원이고 2002년 유물구입비는 약 30억원이다. 직원은 관장(계약직 3급상당)을 포함 일반직 55명, 전문직 20명 등 75명이다. 지금까지 ‘한성판윤전’(1997), ‘서울의 옛모습’(1998),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2002), ‘풍납토성’(2002) 등 5회의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어린이 역사탐험교실, 청소년박물관교실, 전통문화체험교실, 서울역사박물관대학 등의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다.

## (2)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은 경기지역의 고유문화 유산을 조사, 발굴, 연구하고 이를 재조명하여 경기도 역사의 정체성 구현과 도민의 애향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종합박물관이다. 1986년에 박물관의 전신인 경기도향토사료실이 설치되었고 1993년에 건축 착공한 후 1996년에 개관하였다. 박물관의 총예산 69억 중 유물구입비는 15억이다. 직원은 관장(별정4급), 일반직 49명, 전문직이 22명이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쇼케이스를 밀폐형으로 개보수하였다. 1996년부터 매년 2-3차례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였고, 1997년부터 박물관대학, 초중등학생문화학교 등 사회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임시 휴관했다가 1953년에 이전 복관하였다. 1990년에 현위치인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지 내(남구 옥련동 525)로 이전 개관하였고, 1993년에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유물은 주로 개화기의 자료가 많다. 관장은 행정직 5급이며, 예산은 총 13억 원이며 이 중에서 유물구입비는 1억원이다. 현위치로 이전 후 1991년부터 매년 1차례의 기획전시회와 조사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1993년도부터 사회교육활동으로 박물관대학, 토요박물관교실, 박물관역사교실, 청소년박물관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안사업으로 제2전시관(기획전시실, 시청각실 등)을 2003년도부터 건립 예정으로 있다.

## (4)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1991년에 대전직할시향토사료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전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전 지방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여 전시하였다. 1998년 도서관 한쪽 협소한 장소에서 별관건물로 이전 재개관하였으며, 2002년에는 문화체육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총예산은 1억 원이며 유물구입비는 없다. 관장은 문화체육국장(행정 3급)이 겸직하고 있으며,

일반직 5명과 전문직 2명이 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시민소장 문방사우, 한밭문화 1만5천년전 등 4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1993년 한밭의 마을신앙, 대전지방의 도요지 등의 학술조사가 있었다. 사회교육은 2003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 (5) 부산박물관

1978년 11월에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부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망라하는 박물관으로 개관하였고, 1996년 10월에는 지역 내 가야문화를 조명하는 복천박물관(시 지침에 따른 복천분관의 대외명칭으로 사용함)을 개관하였다. 소장자료는 21,000여 점이다. 관장은 별정직(3급 상당)이 맡고 있으며, 정규직원 60명 중 전문직은 20명이다. 2000~'02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한일관계 및 생활민속을 소개하는 제2전시관(6,280㎡)을 신축하고, 전시실을 개보수하였다. 연간 예산은 74억 7천만원이며, 이중 유물구입비는 5억원(2002년)이다. 개관 이후 매년 2~3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강좌를 열고 있으며, 연구조사 또한 활발한 편인데 고고학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 (6)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의 전신은 1963년 개관한 광주시립박물관이었다. 1979년 국립광주박물관이 개관하자 민속박물관으로 확대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1987년 11월 1일에 개관하였다. 부지면적은 22,000평, 건축면적은 2,120평으로 건립 당시에는 국립박물관 중 최대의 규모이었다. 소장자료는 광주·전남지역의 민속자료와 향토사자료 총 9,800여 점이다. 1992년부터 매년 1회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고, 매년 주제를 정해 조사연구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사회교육활동으로는 1992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민속교실, 1994년부터 민속박물관대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는 문화부로부터 지역문화학교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광주역사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 고유의 고고 민속자료와 동식물 광물 해양생물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연구를 통해 전시하고 있다. 1978년에 착공하여 민속과 자연을 종합 전시한 우리나라 유일의 박물관으로서 1984년에 개관하였다. 1988년에 제주도문화진흥원 민속부로 개편된 후 1989년에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재개편되었다. '제주명사서화유작전', '제주해양식물사진전' 등 매년 3~4회의 기획전시회와 1990년부터 '동김녕리 동굴유적' 및 '제주도 곤충' 등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교육으로는 지금까지 박물관어린이교실, 박물관환경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총예산은 18억 4천만원이다. 직원은 관장(별정4급), 일반직이 18명, 전문직이 8명이다.



## 2)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 (1) 여주군향토사료관

여주군의 향토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전시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 여주군 신록사 관광단지에 개관하였다. 여주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연간예산은 1억 6천 2백만원이며 유물구입비는 3천만원 정도이다. 박물관으로의 승격에 대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유물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직원은 전문직 1명 등 총 2명이다. 특별전시회나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석조유물(비석) 탁본전시회를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 (2)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은 삼척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보존하고 문화관광자료를 육성하며 삼척시민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학습과 휴식, 문화향수욕구의 충족을 위한 교육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개관하였다. 연간예산은 1억 9천만원이며 유물구입비는 3천만 원이다.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장(5급)이 겸직하고 있으며 일반직 6명, 전문직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있다. 특별기획전은 '기증유물전시회'(2002)를 개최하였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 박물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02 삼척세계동굴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운영하였다.

### (3)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1992년 영동지방의 민속 및 향토사 자료 및 연구를 위해 시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부속건물로 개관 당시 향토민속관, 97년에 역사문화관이 각각 문을 열었다. '97년 오죽헌 관리사무소와 통합, 이듬해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연간 예산은 23억원이며, 유물구입비는 5억원으로 주로 울곡 관련된 유물의 구입에 소요된다. 관장은 학예연구관(5급)이며, 정규직원 15명 중 전문직은 4명이다. 기획전시회는 '95년부터 '김영숙선생 기증유물 노리개', '명안공주 관련유물', '아름다운 금강산전' 등을 개최하였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은 95년부터 박물관강좌(80명), 96년부터 교사를 위한 전통문화강좌(40명), 98년부터 청소년 문화강좌(150명)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4) 충주박물관

충원문화권의 중심에 있는 충주박물관은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충주읍성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86년 유물전시관으로 문을 열어 지역민들이 기증한 유물, 출토품 등을 모형물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1995년 시·군의 통합으로 충원향토민속사료전시관을 통합

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원은 관장(행정5급)과 일반직 6명, 전문직 2명이 있다. 박물관 총 예산은 5억원이며 2002년 유물구입비는 책정되지 않았다. 2002년 6월에 박물관 지붕(슬라브)을 기와로 개량하였다. 기획전시회는 충주지역출토유물, 고문서 등 1991년부터 지금까지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사회교육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매년 박물관전통문화학교(80명)를 실시하고 있다.

#### (5) 거창박물관

1989년 5월에 거창지역의 유물을 총체적으로 소개할 목적으로 ‘거창유물전시관’이란 이름으로 개관했으며, ‘93년 4월 거창박물관으로 승격되었다. 건립의 기반이 된 유물은 최남식과 김태순씨가 평생을 두고 모은 자료들이다. ‘거창문화복지센터’의 관리소장이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이 없다. 박물관의 정규직원은 3명이며, 이중 전문직은 1명이다. 거창문화복지센터의 전체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며, 자료수집은 주로 기증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년 유물구입비를 따로 책정하지는 않는다.

#### (6) 안동민속박물관

안동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문화재를 이관하여 민속경관지 5만여 평을 조성하면서 안동지방의 유교 및 민속문화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되었다. 관장은 별정직 5급이고, 정규직은 27명이며, 이중 학예연구직은 4명이다. 연간 예산은 13억원이며, 이중에서 유물구입비는 5천만원이다(2002년). 사회교육은 ‘93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민속교실(연 1회, 4일간, 100명), ‘99년부터 (사)안동문화지킴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의 안동문화연구반(월 1회, 80명), ‘97년부터 지역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전통문화교실 등이 있다. ‘93년부터 7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매년 민속 및 유교유산과 관련된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 (7) 군립의령박물관

의령지방의 고고유물 등 역사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되었다. 관장은 군청 기획실장(4급)이 겸직하고 있으며, 박물관 담당직원은 2명이며, 이중 1명이 전문직이다. 박물관의 인사 및 예산은 군립문화회관이 총괄 관리하며, 박물관에는 별도의 독립된 인사권 및 예산권이 없다. 2002년 기준 문화회관 예산은 3억원이며, 박물관은 이중 30%인 3천만원 내외이다. 예산부족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부터 ‘찾아가는 박물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 (8)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은 밀양지역의 향토문화자료를 발굴·수집·전시·보존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영남권에서 수집한 고고 및 서화자료를 주로 전시하고 있다. 당초 사명대사 유물을 보관전시하기 위한 사명대사 유물전시관으로 1974년 문을 열었으나, 사찰측의 유물인도 거부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오다가 1993년초 밀양시립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밀양시립박물관은 건물의 협소 및 접근성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외곽으로 이전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연간예산은 8,000만원이며 유물구입비는 없다.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직하며 직원은 기능직 3명으로 학예연구직이 없어 기획전 및 사회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 (9) 창녕박물관

창녕의 지역문화를 연구홍보하고 선사부터 가야시대까지 창녕지역에서 출토된 고고유물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6년 창녕유물전시관으로 출발하여 1997년 창녕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박물관 전시실의 리모델링 작업을 계획중이다. 연간예산은 7천 4백만원이며 유물구입비는 1,000만원이 책정되었다. 직원은 관장(행정6급)과 일반직 1명, 전문직 1명 등 3명이다. 지금까지 ‘계성 계남리 북5호분 출토유물전’ 등 3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사회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물은 국가귀속자료를 대여하여 전시하고 있고 유물구입은 민속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10) 전주역사박물관

전북과 전주의 역사문화자료를 통해 전주가 갖는 역사 속에서의 시대정신을 살펴봄으로써 전주의 중심을 세우고 전주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개관하였다. 연간예산은 5억 1천 8백만원이며 유물구입비는 약 4,000만원이다. 박물관 운영은 민간위탁([사단법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으로 하여 직원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다. 직원은 관장(계약직 5급상당)을 포함 일반직 5명, 전문직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에 ‘전주의 근대교육-학교’ 특별기획전을 개최한 바 있고, 사회교육으로 제1기 ‘전주역사박물관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으며 봄과 가을 2회의 역사기행 답사프로그램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 3) 지역종합박물관의 현황표

2002. 11. 현재(개관년도순)

번호	명 칭	설 립 자	관 장	직원수 (전문직)	규 모(㎡)	소장자료(점)	개관년 도
1	인천광역시립 박물관	인천광역시장	행정5급	19(6)	부지 9,753 연면적 2,692	도자기류 4,910	1946
2	부산박물관	부산광역시장	별정3급	60(20)	부지 56,334 연면적 7,797	고고류 21,000	1978
3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	제주도지사	별정4급	18(8)	부지 32,959 연면적 5,299	고고, 민속류 28,527	1984
4	충주박물관	충주시장	행정5급	6(2)	부지 7,318 연면적 1,373	청자, 토도류 4,270	1986
5	광주광역시립 민속박물관	광주광역시장	행정4급	20(8)	부지 72,665 연면적 4,216	민속류 등 9,852	1987
6	거창박물관	거창군수	행정5급 (겸직)	3(1)	부지 8,552 연면적 1,349	고고류 등 1,200	1989
7	대전광역시향토 사료관	대전광역시장	행정3급 (겸직)	5(2)	부지 3,324 연면적 1,071	민속류 11,800	1991
8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시장	별정5급	27(4)	부지 171,630 연면적 3,041	민속류 4,882	1992
9	강릉시오죽헌 시립박물관	강릉시장	학예연구관	15(4)	부지 17,263 연면적 2,209	민속류 3,100	1992
10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장	행정5급 (겸직)	3(0)	부지 819 연면적 419	서화류 5,930	1993
11	군립의령박물관	의령군수	행정4급 (겸직)	2(1)	부지 3,250 연면적 739	민속류 549	1993
12	창녕박물관	창녕군수	행정6급	3(1)	부지 4,881 연면적 1,193	토도류, 철기 706	1996
13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지사	계약직 (1급상당)	49(22)	부지 41,394 연면적 10,153	고고, 민속류 5,498	1996
14	여주군향토사료관	여주군수	(학예연구사)	2(1)	부지 2,600 연면적 929	토기바리, 옹돌 734	1997
15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장	행정5급 (겸직)	8(1)	부지 9,247 연면적 2,580	고고, 민속류 4,275	2000
1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장	계약직 (3급상당)	75(20)	부지 99,854 연면적 20,165	역사, 민속류 23,400	2002
17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장	계약직 (5급상당)	10(5)	부지 4,530 연면적 2,141	역사, 민속류 8,111	2002

### Ⅲ. 지역종합박물관의 과제

#### 1. 광역자치단체에서 규모 있는 종합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은 총 247개관이다.<sup>13)</sup>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은 총 35개관이며, 공립박물관 중에서도 종합박물관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은 모두 17개관이다.

이를 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총16개 중에서 7곳(44%)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만을 보면 7개 자치단체 중 5곳에서 종합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박물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종합박물관을 반드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비교우위에 있는 광역단체에서 규모있는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건립 후의 수혜대상은 당연히 지역민들이 우선적일 것이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민들의 통합, 나아가 지역의 홍보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자치단체들 중에서 대구에는 소규모의 향토사료관이 있고, 울산에서는 공업역사박물관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대전에는 소규모의 향토사료관이 있는데 박물관으로의 확대 이전이 현안사업으로 되어있으며, 전남에서는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에게는 종합박물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아직 구비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에게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종합박물관의 건립을 바라고 싶다.

그러면 어떠한 박물관을 만들 것인가. 고고, 역사, 미술, 민속, 자연사 등 여러 학문이 복합적으로 탐구되는 박물관이면 좋다. 또 지역의 특징을 살린 확실한 주제가 있다면 지역의 특징적 요소들을 통시대적으로, 또는 주제별로 일별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보자. 광주는 흔히 예향, 의향 등으로 불리고 있고, 규모있는 박물관 2개(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가 병존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예향이나 의향을 나타내주는 전시실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전국으로 산일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광주민속박물관에서는 ‘광주역사관’의 건립을 현안문제로 안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박물관은 그 지역 역사와 문화적 요소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지역별 특징을 살린 순수한 주제박물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맡아도 된다.

13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김정일 제공. 2002. 6. 30 현재 총 244개관(국립 25, 공립 32, 사립 103, 대학 84)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박물관 3개관을 합산한 숫자.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의 수는 192개로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까지 합한 수효이다.

## 2.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우선 박물관의 조직을 보면 광역단체 박물관에서는 1곳을 제외하고는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관장이 대표성을 띠고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단체 박물관은 60%(6/10)가 겸직 또는 조직이 없어 독립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박물관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장의 직렬과 직급은 인사·재정·사업 등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확보, 박물관의 대외적 위상과 대표성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분석대상 17곳 가운데 학예연구직이 관장 1곳, 전문가 출신 관장(별정·계약직 포함) 7곳(41.2%), 행정직 관장 9곳, 관장 없음 1곳으로 나타났다. 국립박물관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학예연구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 점과 비교해볼 때 아직도 과도기적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계약직과 별정직 관장이 과연 전문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관장의 연구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박물관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전환, 장기간 관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또 계약·별정직 모두 신분보장이 확실치 않아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된다. 행정직 공무원이 관장을 겸직하는 5곳은 대체로 박물관 규모가 작은 곳이어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최고 14년, 최소 9년에 이르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관장직을 겸직 운영하고 있는 점은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다.

현임 관장의 직렬 현황

	계	전문직		행정직(독립)	행정직(겸직)	조직없음
		학예연구직	별정·계약직			
인원	17	1	6	4	5	1

직원의 수 역시 관장직과 함께 박물관 운영의 중요한 관건이다. 분석대상 박물관들은 그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운영주체에 따른 평균직원 수는 광역단체가 35.1명, 기초단체가 7.8명이다(전체평균은 19.0명). 대략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4.5배에 이른다. 이런 사정은 전문직 비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 광역단체가 12.3명, 기초단체가 2명이다(전체평균은 6.2명).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중 전문직원이 1명뿐이거나 아예 없는 곳도 6곳에 이른다. 사실상 1~2명으로는 유물관리 이상의 박물관 활동이 불가능함을 감안하면, 지역내 문화복지의 최일선에 서야 할 박물관의 책무를 포기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박물관의 조직과 인력은 박물관 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아무리 작은 박물관이라 할지라도 관장은 연구능력과 행정력이 겸비되어야 하고, 학예연구직 또한 최소 3~4명은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특히 기초단체의 박물관이 발전하려면 우선 조직과 인력의 정비가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한다. 박물관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일은 모두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 3. 지역의 유물은 지역에서 수집 보관해야 한다.

유물이 없는 박물관은 생각할 수 없다. 유물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흔적을 말해주는 증거물이다. 지역의 유물이 없다면 지역적 특질을 규명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다음 세대에서 연구하고자 하여도 제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유물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발굴, 기증, 수집, 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입하는 방법이 제일 편리하고 많이 이용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박물관 중에서 4개관(광역시, 기초 3)을 제외하고는 액수에 차등이 있지만 유물구입비를 확보하고 있다. 광역단체 박물관은 관당 평균 734백만 원으로 외견상 많아 보이지만 기관끼리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기초단체 박물관은 예외적인 한 곳을 제외하고는 1~5천만원 수준이다.

유물은 이제 골동화되어 버렸고, 그 희귀성 때문에 고가에 매매되고 있다. 유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는 개보수할 때 전시품의 부족현상을 초래하며, 박물관의 불거리가 적어지는 등 박물관의 위상과도 직결되고 있다. 박물관마다의 적절한 액수 설정은 어렵겠지만 지역의 유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단체 박물관 유물구입비 확보 현황(2002)

	서울역사	인천시립	대전향토	광주민속	부산시립	경기도	제주도립
금액(백만원)	3,000	100	0	20	500	1,500	20
유물구입/총예산	23.9%	7.6%	0%	1.5%	6.7%	21.7%	1.1%

### 4. 일정기간 마다 전시실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물관은 그 시대의 문화수준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을 나타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박물관에서는 첨단기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편리하고 쉽게 전시내용을 이해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시기마다 전시내용과 전시시설을 그 시기의 기술과 문화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새롭게 개보수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의 국립박물관들도 10년 정도의 주기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

다.<sup>14)</sup>

1990년 이전에 개관한 공립 종합박물관 6개를 살펴보자. 이 중에서 인천시립박물관은 1990년에 이전 개관하였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은 1978년 개관 후 22여 년만인 2000~2002에 걸쳐 전시실을 개보수하였다. 1984년 개관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내년(2003)에 소액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보면 공립박물관의 개보수 기간은 대략 20년으로 국립박물관 주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20년에 이르지 못한 충주박물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거창박물관 등은 개관 후 13~16년 동안 똑같은 전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인 유물보존 환경은 물론 관람환경을 적절히 조성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비추어짐으로써 관람객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개발사업보다 양질의 문화적 서비스를 비중 낮게 생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 5. 박물관의 생활화를 이끌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박물관은 최고의 휴식처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높은 지식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잔재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박물관을 자주 접해보지 못한 생소함의 선입관념과 박물관의 구태의연한 시설과 활동내용이 복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현대의 박물관은 ‘문턱’을 더욱 낮추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더욱 많은 사람이 박물관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중의 기본은 사회교육과 기획전시회 등을 자주 열어 문화향수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은 문화적 역량을 키우지만, 박물관으로서는 지역민들이 자주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현대 박물관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사회교육은 바탕이 되는 기능이다.<sup>15)</sup>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소형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많이 실시하고 있는 편이지만 인력과 시설미비로 애로를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사회교육은 지역민들에게 박물관 사회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린이 - 청소년 - 성인으로 이어지는 순환사이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획전시회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기도 하고, 역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상설전시실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볼거

14 1978년 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은 2회(1989~1990년, 2001년)에 걸쳐 전면 또는 일부 개보수하였고, 1984년에 개관한 국립진주박물관은 1996~1998년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으로 개보수하는 등 일정기간마다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15 21세기를 향하는 박물관의 기능과 과제로 1)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박물관, 2)문화재보호기관으로서의 박물관, 3)공공봉사기관·여가선용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을 들고 있다.(이난영, 「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박물관학보(博物館學報)』 1, 한국박물관학회, 1998. pp. 26~31)



리를 제공하고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으로 현대 박물관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박물관에 따라 많게는 년 4~5회, 적게는 1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비용에 있어 선진 박물관과 그렇지 못한 박물관의 차이는 너무 심하다. 국내의 전시회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000만~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어느 광역단체 박물관은 연간 300만~9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2~3회의 전시회를 해야한다고 하니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기초자치단체 박물관들은 규모있는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시회 개최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박물관이 연구 교육 전시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불식시키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시기에 맞는 축제의 개최, 대중적인 음악회나 연주회, 지역 최고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의 구비, 박물관에서만 살 수 있는 문화상품을 구비한 뮤지엄 샵의 운영, 안락하고 편리한 휴게시설의 구비 등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 박물관들 중에는 서서히 한가지씩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

박물관은 지역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민들은 박물관을 찾고, 박물관은 더욱 알차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리드해 갈 수도 있다. 이렇듯 박물관의 생활화를 전제로 박물관은 ‘21세기 핵심문화시설’이 되는 것이다.

## 6. 박물관도 문화산업적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박물관은 그 지역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의 제1목표가 되는 관광자원이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시설의 미비, 운영방법의 미성숙, 안내요원의 부족 등으로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박물관에서 수익을 낸 경우는 더욱 드물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거대하고 화려한 뮤지엄 샵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은 에펠탑 옆서를 비롯한 다양한 미술상품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판매하고, 대영박물관을 비롯한 영국의 박물관들은 ‘문화유산 이미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운영비에 보태기 위한 수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전쟁’시대에 박물관 활동의 증진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다.

박물관은 지역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례로 지역박물관이 지역의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 예가 있다. 19세기 중엽, 유명한 흑림지대(黑林地代)를 배경으로 독일의 티티제(Titisee)에 건립된 시계박물관이 오늘날 이 고장을 전세계 빼꾸기 시계산업의 중심지로 바꾼 것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제 박물관은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의 차원을 넘어 문화산업적 자원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IV. 맺는 말

이상으로 지역 종합박물관의 현황과 현상적으로 나타난 과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공립박물관은 1980년대 건립의 불씨를 당겨 '90년대에 본격적인 건립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박물관 중요성의 인식과 아울러 국민소득의 향상을 바탕으로 박물관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범위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박물관은 수적인 면에서 증가해왔고 앞으로는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박물관의 3대요소라고 하는 시설 인력 유물의 측면이나 운영의 측면을 박물관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물론 중앙과 지방의 국립박물관과 일부 대규모의 공립박물관들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규범을 보이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에 산재해있는 중소규모 박물관으로의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공립박물관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행정의 보수성과 이어온 관성으로 인해 아직도 박물관의 기능이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단순 행정기관으로 취급당하기도 하고, 전시기능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박물관 활동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 공립박물관들도 그 숫자가 급속히 늘어가는 만큼 박물관학적인 입장에 충실한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 우선은 기능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예산 등 기초조건들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기능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의지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지역문화와 박물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역민들의 결속과 대외적인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역박물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탐구하는 가운데 민족의 보편성 속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지역민들을 결속시키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또 문화 단체장으로서의 이미지 변신용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박물관들은 건립 후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박물관들은 보다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해본다.